

도시재생 정책 동향

Urban Regeneration Trends



기사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폐교에 새 숨결 불어넣는다! 우수 활용 모델 집중 지원

행정안전부 | 2026. 6. 1.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폐교를 활용한 지방정부-교육청 공동협력사업' 공모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최근 5년간 폐교되는 학교가 2021년 24개에서 2025년 49개로 두 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폐교가 지역의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것이다.

폭염·폭우에도 더 안전하게, 동네 도서관·경로당 318곳 새단장

국토교통부 | 2026. 6. 3.

폭염·폭우가 잦아지는 가운데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이 더 안전하고 쾌적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사업을 통해 노후 공공건축물 318동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해 에너지성능 개선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성능까지 강화한다.

주민이 직접 키우는 지역관광, '26년 '관광두레' 48개소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 2026. 6.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박성혁, 이하 공사)와 함께 지역관광 생태계를 이끌어갈 '2026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48개소를 최종적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전국 21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공모에서는 총 116개의 주민사업체가 신청해 약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지역 기반 관광 창업에 대한 현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